복야공파종회 정기총회

△복야공파종회는 안동시 태화동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좌 : 권기덕 신임회장 / 우 : 권계동 전임회장

복야공파종회(僕射公派宗會 회장 權啓東)는 4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감나무길(태화동)에서 전국에서 온 파족(派族)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익(權五翼)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묘소 및 복야공 파조 단소를 향한 망배(望拜), 고인(故人)이 된 권헌성(權憲成) 권오식(權五埴) 고문의 명목(冥福)을 비는 묵념에 이어 상읍례(相揖禮)가 있었다.

권계동 파종회장은 인사에 앞서 권오을(權五乙) 전 국회사무총장은 축전을 보내왔고, 김광림 국회의원은 전화와 보좌관이 대신 참석하고 권택기(權宅起) 전 국회의원, 권광택(權光澤) 권남희(權南姬) 안동시의원, 권대란(權大蘭) 신임 복야공파부녀회장 등을 소개하였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벌써 농촌에는 바쁜 일들을 모두 뒤로 미루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고 오늘은 상호 정보교환(情報交換)도 하고 족의를 돈독(敦篤)히 하며 즐겁고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지난 2010년 4월 17일(토) 파종회장의 중책을 맞고 어깨가 무거움을 느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5년이 지나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동안 미력하나마 파종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았음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능한 분을 후임 파종회장으로 선임하여 알찬 파종회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 오늘 발간하여 반질(頒帙)하는 파종회지 제3호도 파족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족의를 돈독히 하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간 회지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파종회지의 발간이 계속되어 우리 조상의 훈업(勳業)이 널리 홍보되어 우리 모두는 훌륭한 조상의 자손 됨에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살아감은 물론이고 타파의 족친이나 타성에서도 부러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경과보고, 감사보고와 2014년도 결산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원개선에선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추대(推戴)하기로 결의하고 권기덕(權奇德 76살 36世 宗正公系) 박사를 제11대 복야공파종회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감사는 권영화(權寧華 안동) 권석호(權錫鎬 경남 합천)를 선출하고 부회장은 고문단과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나의 선조들이 경남 밀양에서 세거하기 시작하여 430여 년 동안 살아오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안동을 성지(聖地)라고 들어 왔음을 회고(回顧)하고 부족하나마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회장은 경북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대구대학교대학원장(大邱大學校大學院長)을 역임하였으며, 심리학을 전공했고 문학박사(文學博士)이며, 현재 대종원 부총재, 종사연구위원회 고문으로 문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학산(鶴山)선생의 12세 종손(宗孫)이다.

신임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기타토의를 끝으로 총회를 모두 마치고 인근에 있는 <황소갈비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인 점심을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教授 安東權公 諱 應禎 墓 改碣 告由祭

교수 안동권공 휘 응정 묘 개갈 고유제

△참제원기념촬영

△20세 휘 응정묘 개갈고유 권오수초헌, 권종준축관

4월 21일 오전 11시 안동시 와룡면 소등촌(所等村) 진봉산(振鳳山)에 위치한 조선시대 호조, 형조, 관상감, 전의감, 혜민서, 사역원 등에 설치한 종6품의 기술관직인 교수(敎授) 휘(諱) 응정(應楨 : 20世) 묘소(墓所)에 개갈(改碣) 고유제(告由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쾌청(快晴)한 봄 날씨에 중장비로 비석(碑石)과 망주석(望柱石)을 새로 세우고, 잔디를 입혀 산뜻하게 정리하였다.

참제분정은 초헌관(初獻官) 권오수(權五秀), 아헌관(亞獻官) 권계동(權啓東), 종헌관(終獻官) 권혁명(權赫明), 축(祝) 권종준(權鍾濬), 찬자(贊者) 권오주(權五柱)가 담당하였다.

고유제가 끝나고 중요민속자료 제204호인 소등재사(所等齋舍)에서 음복례(飮福禮) 및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타월을 선물하였다.

초헌관인 권오수씨의 15대조인 휘(諱) 응정(應楨)은 덕기(德麒), 덕린(德麟), 덕봉(德鳳), 덕황(德凰) 등 아들 4형제를 두었으며 막내아들 덕황의 사위가 의성김씨(義城金氏)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다. 배위(配位)는 의인(宜人) 양양권씨(襄陽權氏) 현감(縣監) 휴(休)의 따님이며 합폄(合窆)되어 있다.

응정의 부(父)는 19세(世) 사영(士英)으로 자(字)는 자화(子華) 호(號) 금계(琴溪)이고 조선시대에 승문원(承文院), 사역원(司譯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훈련원(訓鍊院) 등에 두었던 관직의 하나인 습독(習讀)이다.

묘소는 판서공(判書公) 묘하에 있고 배위(配位)는 조선의 오위에 속한 정7품의 무관직인 사정(司正)인 예천권씨(醴泉權氏)이다.

조부는 18세(世) 휘(諱) 곤(琨)으로 조선 때 5위에 속한 정4품 무관직인 호군(護軍)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배위(配位)는 서원정씨(西原鄭氏) 약(若)의 딸로 정부인(貞夫人)이며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소등촌 진봉산에 자좌로 합폄(合窆)되어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모충사(慕忠祀) 향례 봉행

지난 4월13일 전북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조선 중기 무신인 칠송공 권극평 등 9위 위패를 봉안한 모충사 사당에서 후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향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권극평(權克平)은 추밀공파 매헌공계 23世로 전북 태안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칠송(柒松)이며 무과에 급제하고 부모상에 6년간 시묘(侍墓)를 하였다. 임진난에 전북 태안에서 의병과 곡식을 모아 진주성의 최경회(崔慶會) 휘하로 가 분투하였으며 최경회가 순사하자 탈출하여 의주 행재소에 가 전말을 상주하니 임금이 진도칭상(震悼稱賞)하고 오위도총부 도사로 특제하며 보공장군(保功將軍)의 품계를 주어 임금을 호가(扈駕)케 하였다. 그러나 격전에서 입은 창독으로 선조 27년 졸하니 임금이 옷 일습을 내리고 치제케 하였다.

순조 6년 사림의 발의로 정읍 태안에 모충사를 세우고 지역 임란에 유공 7장군 중 1인으로 종향케 되었다. 고종 5년 훼철되었다가 1924년 정읍군 옹동면 칠전에 설단했다가 사우(祠宇)를 중건하였다.

위패는 권극평(權克平-진주성전투), 백광언(白光彦-용인전투), 백함생(白咸生-용인전투), 이지시(李之詩-용인전투), 이지례(李之禮-용인전투), 송지순(宋之順-전주) 송인신(宋寅臣-전주), 최응립(崔應立-병자호란,강화), 전덕린(全德麟-용인전투), 등 9위이고 헌관은 초헌 이태열(李太烈), 아헌 김병옥(金炳玉), 종헌 백순일(白淳一), 집례 권홍(權洪), 대축 엄구석(嚴九石)이다. 〈권혁찬〉

가일참의공종중 제10차 정기총회

가일참의공종중(회장 권대승) 제10차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가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안동시 풍천면 가곡1리 권종만 고문 자택에서 참의공 임원단, 전국후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종갑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대승 회장의 인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권주연 안동종친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1시부터 척사대회에 들어가 족친간에 족의를 두텁게 하는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참의공 종중 총회에서 권대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포스코를 다녀와서

검교공파서울종친회(회장 권오운)는 화사한 봄날 3월26일 오전9시 청량리역앞 광장에서 회원34명이 관광버스로 1박2일 포스코 견학일정에 들어갔다. 오운 회장의 상세한 설명과 "특히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즐겁고 재미있는 모처럼의 포스코 견학이 되시기 바란다"는 인사가 있었다.

관광버스는 고속도를 약 2시간 30분쯤 달려 칠곡휴게소에서 점심을 하였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권정섭 부회장이 금오산,갓바위,은혜사,호미곶 등 차창 넘어 보이는 곳을 재미있게 설명을 하여 즐거움을 더하였다.

포스코에 도착하니 3시가 조금 넘었으며, 우리를 영접하는 C상무, L부장 등 5~6명의 안내로 포스코 역사관으로 들어가 안내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포스코의 설립과 오늘에 이르는 역사 이야기를 들었으며 제8대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위대한 포스코(POSCO the Great)의 새로운 혁신 아젠다를 비전으로 선포하였으며 혁신 아젠다는 1. 철강본원 경쟁력 강화, 2. 신성장사업 선택과 집중, 3.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이라고 한다.

글로벌 철강전문 분석기관지인 WSD는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5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바 있다고 한 바 있으며 일행들은 역사관을 나와 버스에 탑승했다.

바다에 인접한 공장내부가 어마 어마하게 커서 이동수단은 모두 버스로 하며, 열연공장 앞에서 하차, 장갑과 이어폰을 착용 후, 2층 계단을 올라가니 뜨거운 열기가 우리들을 먼저 맞이한다.

시뻘건 강판이 컨베어벨트에 실려 시속 60~70㎞로 가로로 나오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어서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그다음 제철원석 야적장 등 여러 곳 견학을 마치고 구룡포 해변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숙소로 향했다. 27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도 보고, 해변가 산책도 하고 상쾌한 아침도 맛있게 먹고 나니 어제의 피로는 말끔히 해소되었다.

일행은 일정표에 따라 버스에 탑승 호미곶으로 향했다. 멋진 견학 중에 "강철인연"이라는 글귀가 아주 감동적이었다.

이번 견학을 통하여 족친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종친회 모임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권영기 총무부장〉

槐雲칼럼

충장공 도원수의 옛 집터를 보고 〈2〉

충장공 애국심을 되살리자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지난 줄거리] 최근 KBS 주말연속극 대화드라마 '징비록(懲毖錄)'에도 충장공이 자주 등장하고, 중앙일보가 서울 종로 행촌동 권율장군의 옛 집터 딜쿠샤(Dilkusha)를 보도해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충장공은 1582년(선조15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1587년 전라도도사, 1591년 의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1593년 6월과 1596년 3월 두 차례 8도 도원수(현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발발하자 전라순찰사로 금산 이치(梨峙) 전투, 수원 독산성(禿山城) 전투와 행주 전투에서 대승했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달리 강화도 가옥이 소실된 탓인지 뚜렷한 기록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먼저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에 보면 충장공이 임진왜란 발발 직후 1592년 4월 광주목사로 부임되어 가며

'연려실기술' 기록을 인용하여 충장공이 임금에게 부임인사를 하고 급히 도성을 출발할 때, 당시 도승지(현 대통령 비서실장)였던 사위 백사 이항복이 왜 급히 가십니까? 물으니 '국가의 일이 급하니 이때야 말로 신하로서 죽음을 바쳐야할 때다.'라며 서둘러 전쟁터로 나가는 충장공의 비장한 각오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명한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2년차인 1593년 2월12일(양 3월14일) 충장공이 전라순찰사로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儆), 승장(僧將) 처영(處英)과 2천3백 여 병력으로 우끼다 히데야끼(宇喜多秀家)가 이끄는 왜군 3만여 명을 궤멸시킨 승첩이었다, 최신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7개부대 3진으로 나누어 산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를 하고 새벽 6시부터 종일토록 9회에 걸쳐 맹공을 가했으나 충장공은 활, 칼, 창의 백병전과 화포, 석포와 행주치마의 부녀자들까지 동원한 혈전으로 왜군을 물리쳤다.

정부는 1970년에 행주산성 덕양산(德陽山) 정상에 덕양정(德陽亭)과 대첩비, 충장사(忠壯祠)을 건립했고, 1979년에 기념관, 1986년에 궁도관, 1992년에 토성(土城)을 복원하여 명승지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기공사는 충장공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842년 왕명으로 창건했으나 6·25 전쟁기간 소실되어 근년에 다시 복원하여 경기도 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건설 중인 합천초계 '권율 도원수부 재현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8-8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96억원 규모로 31,895 평방미터부지에 현문 2개, 객사, 동헌,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초계획은 2015년까지 완성예정이었으나 약 26억 원의 예산부족으로 부지조성과 공원만 완료되었고 건물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충장공이 살던 서울 집터는 종로구 사직로 2길 17(행촌동) 언덕에 '권율장군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었다. 지금은 집은 없지만 당시 충장공이 심었던 은행나무는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90여 년 전 미국언론인 앨버트 테일러가 부근 땅을 매입하여 프랑스식 2층 집을 지어 살았으며, 건물 초석에 'Dilkusha (희망궁전, 이상향)1921'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테일러는 독립선언서 사본과 기사를 동생 빌에게 전달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로 알렸다. 그는 일본인에 체포되어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고 딜쿠샤는 주인을 잃고 방치되었다.

집 뒤로는 북한산의 근엄한 모습, 서쪽으로 무악재, 동쪽 계곡을 따라 옛 성벽이 고풍을 자아내고 남쪽으로 서울도심이 훤히 보이는 명당으로 미래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역사가 흘러 강산은 변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충장공의 뜨거운 애국심이 흐르고 있다. 올해는 행주승첩 423주년, 충장공이 가신지 416년이 되는 해다. 지금도 임란전과 같이 주변 강대국의 패권야욕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가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부녀자들까지 동원된 행주대첩을 생각하며 군관민이 하나 되어 조국을 지켜야한다, 특히 안동권씨 후손들은 충장공의 거룩한 충절을 본받아 영광스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 역사기행

왕자(王子)의 난(亂)과 정도전(鄭道傳) 〈2〉

▣ 향촌 권오창 (본원 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서)

제1 왕자의 난에 가담된 인물들을 조금은 알아두자.

정도전 그의 자는 종지이고 호는 삼봉이며 경북 봉화출신이다. 그는 형부상서 정윤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1360년(공민왕 9년) 19세로 성균관 시험에 합격하여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라 29세 때에는 성균관 박사로 임명되고 성균관 예사로 승진했다. 이색의 문인이었으며 이인임의 친원배명정책에 반대하여 나주에 2년간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삼각산 기슭에서 후학을 지도하다가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의 참모가 되었으며 조준의 전제개혁안을 단행토록 건의했고 정몽주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척불숭유로 조민수 구세력을 탄핵하고 조선개국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정안대군(태종)에 의하여 참수된다.

이때에 정안대군을 적극적으로 도운 안산군수 이숙번은 안성군에 피봉되었고 1400년(정종 2년) 박포의 난(제2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웠으나 교만과 사치를 일삼다가 함양에 장류되어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친다.

그리고 하륜은 최영의 요동반도 정벌계획에 반대하여 유형을 당했다. 그는 영주목사, 경기관찰사를 역임하고 정도전의 난 때에는 충청관찰사로서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와서 난을 평정하였다.

정도전과 단짝이었던 남은은 왜구를 삼척에서 격파한 공이 크고 위화도회군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죄는 있어도 큰 공은 잊을 수 없다'라는 평판은 있었으나 정도전과 같이 방석의 편을 들다가 역시 정안대군(태종)에게 죽임을 당한다.

심효생을 그의 딸이 의안대군(방석)의 빈이 되었으므로 정도전과 함께 방석을 세자로 옹립하는데 가담했다가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제1차 왕자의 난이 평정되자 세자책봉을 방원에게 돌아가도록 거론되었으나 방원은 극구 사양하여 그해 9월에 방과에게 세자책봉과 동시에 조선조 제2대 정종대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방원의 혐의는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동복형제간의 왕위쟁탈전이며 골육상생이다. 일명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방간 방원간의 시의심이 원인이 되었는데 박포는 방석의 난 때에 공을 과소평가 받아 불만을 품어오다가 방간을 충동질하여 방간의 사병을 동원하여 개성에서 교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방간은 싸움이 불리하였으므로 무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갔다. 박포는 체포되어 사형당하고 방간은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1421년 58세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 제1차 왕자의 난 때에 방간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데 일조한 은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살펴보건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왕권투쟁의 역사는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회군(1388년)으로 인하여 1392년 조선왕조를 창업한 후 27대 518년 만에 망하고 말았으나 여기에서도 예외는 없었다고 본다. (끝)